



각종 WIPO國際심포지움 박두 6月중 工業所有權보호 심포지움등 열려

▲ 효율적인 工業所有權保護를 위한 심포지움이 오는 6월 15·16日 이틀동안 스위스 제네바소재 WIPO본부에서 열린다.

이날 심포지움에는 캐나다, 서독, 영국, 이태리, 인도, 미국, 네덜란드, 브라질, 말레이아등에서 전문가들이 참석, 발표할 예정이다. 이 심포지움의 참가비는 5만 6천원.

▲ WIPO가 주최하는 동·식물 및 미생물등 생명공학적 발명의 보호에 대한 심포지움이 오는 6월 4·5日 양일간 미국 뉴욕소재 코넬대학에서 열린다.

생명공학에 대한 현황과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열리는 이번 심포지움의 참가희망자는 WIPO나 코넬대학으로 직접 신청서를 제출해야되는데 참가비는 무료이며, 숙박비는 1人1泊 30불, 2人1泊 50불.

▲ 工業所有權 및 國際經濟協力에 관한 심포지움이 AIPPI

후원으로 오는 6월 8일부터 12일까지 불가리아의 소피아에서 열린다.

이날은 국제경제협력과 工所權 및 이의 침해, 법적보호등에 대한 주제토의가 있을 예정이다.

日, 特許微生物 寄託센터 完工 向後 30年 微生物수탁급증 對處가능

日本通産省 工業技術院 微生物工業技術研究所가 微生物受託급증에 대처하기 위해 85년부터 2년계획으로 건설해 온 「特許微生物寄託센터」가 완공, 최근 기공식을 가졌다.

同센터의 수용능력은 微生物

약 1만6천株로 종래의 2배능력을 보유하고 있어 향후 30년간은 미생물출원 증가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오는 10월부터는 動·植物細胞까지 保管範圍를 廣大할 예정이다.

포르투갈特許法등 일부改正

EPC加入따라 EPC法과 調和위해

포르투갈 特許廳은 지난해 1月 EPC에 加入, 이에따른 EPC法과의 調和를 꾀하기 위해 최근 特許法등 일부 法令을 改正했다.

그 주요 內容을 보면 製法特許에 대해서도 立證責任主義 전환을 적용, 特許權者의 배타적 權利를 신장시키는 한편 出

願時 명세서 部分의 제출을 願行 2부에서 1부로 出願節次를 간소화했다.

또 優先權주장시에는 優先日로부터 18개월전에는 公開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優先權주장이 없을 때는 18개월전이라도 公開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〇>

1年앞선 特許管理
10年 앞선 先進企業
工業所有權 研修는
先進企業의 根幹